

제목 : 레위기 6. 속죄제 - 사함의 신비

본문 : 레위기 4장 13-21, / 참고 - 레위기 6:24-30 /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 속죄제가 드러지려면?

1. 레위기에서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란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를 대속(sin offering)하고,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제단을 비롯한 주요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purification offering) 제사입니다. 이전에 소개되었던 제사들(번제, 소제, 화목제)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발적인 제사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속죄와 관련된 내용은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라 그런지 다른 제사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속죄와 관련된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 속죄제는 이전의 제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됩니다. 4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에 따른 각각의 경우들이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부상황과 제물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문제가 단순하게 일반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죄가 용서받고 부정한 존재가 깨끗해지는 것은 이러한 제의 절차들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 1)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속죄제물을 드릴 때에 신분과 관계없이 동일했던 절차는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였는지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왜 제물의 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 2) 반면 속죄제물을 처리할 때 어떤 부분들은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제물의 피와 그리고 남은 고기의 처리에서 특히 달랐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들이 어떠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왜 같은 속죄의 제사이면서도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 3)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범죄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왜 사람이 아닌 제단을 비롯한 성물과 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일까요? 속죄와 정결함의 메카니즘에 담긴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 속죄제물과 의식보다 중요한 것

2. 속죄제의 규례는 레위기 4~5장 총48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도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전에 소개된 어떤 내용들보다 독특한 방식으로 레위기 5장은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지를 배울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필 때 그 표면적인 내용과 함께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죄제의 규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 4장과는 다르게 5장은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뜻하는 원어를 각각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이것은 “죄”의 성격과 속성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까요?

- 1절 허물(**חַטָּא**, 아온) / 2,3,4,5절 (**אָשָׁא**, 아삼) / 6절(**חַטָּא**, 핫타아) - 1절

1)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죄의 문제와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것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2) **죄를 깨달은 다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해야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복한 사람들입니까? 자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바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의 제물로 심지어 어떤 제물까지 허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보아 **속죄를 위하여 제물이나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4)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규례는 6장 24~3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먹는 규례를 살펴보십시오. 또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속죄제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규례를 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속죄제를 통하여 죄와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조차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소서

כָּפַר(3722, 카파르) -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카파르(동사)는 기본어근이며, (a) '덮다, 가리다 cover, 진정시키다, 달래다 pacify, 화해하다 make reconciliation', (b)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cover over with pitch'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00회 나오며, 주로 피엘형으로 사용되었으며, 칼 1회, 푸알 5회, 니팔 1회, 히트파엘 5회 사용되었다.

1. 피엘형에서

- (a) '덮다, 가리다, 진정시키다, 달래다, 화해하다'(창 32:21, 사 47:11, 잠 16:14).
- (b) '덮다, 가리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속죄하다'(BDB)(출 32:30, 민 17:11-12, 민 25:13, 신 32:43, 겔 16:63 등).

2. 푸알형에서 - '덮어지다, 가리워지다, 속죄되다'(사 6:7, 사 22:14, 사 27:9, 잠 16:6, 민 35:33).

3. 히트파엘형에서

- (a) '덮어지다, 가리워지다', 삼상 3:14에서 엘리 집의 죄악이 제물이나 예물로 덮어질(속죄될) 수 없다고 한다.

4. 니팔형에서

- (a) '덮어지다, 가리워지다'. 신 21:8에서 '피가 덮어질' 것이라고 한다.

참조 - 코페르('속량, 속전')의 의미에서부터 카파르의 의미가 보다 더 잘 해설된다. 이 단어의 의미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뜻이다. 이 용법의 대부분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과 관련되며, 이때 이 단어들은 경배하는 자를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레위기에서 49회의 실례는 이런 의미로 쓰이며 다른 의미는 입증되지 않는다. 이 동사는 '선물로 달래다'라는 관련 의미가 나타나는 창 32:20, 잠 16:14, 사 28:18을 제외하고는 항상 죄 혹은 불경한 것의 제거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화해의 신학을 적절하게 예증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별히 피로 상징화되는 희생 동물의 생명은 예배자의 생명의 대용에서 요구된다. 구약성경의 신학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없는 생명이 죄있는 생물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상징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동물에 대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참조: 레 16:21, 레 1:4, 레 4:4 등). 그런 후 그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속죄의 염소로 내보내는 행위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다.(R. L. Hartley).

5. 칼형에서(1회)에서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창 6:14에서 방주의 방수에 대해 사용되었다: "너는 갯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참조: BDB; TWOT).

סָלַח(5545, 살라흐) - 용서하다, 사면하다

살라흐(동사)는 기본어근이며, '용서하다, 사면하다 forgive, pardon'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46회 나오며, 칼형과 니팔형으로만 사용되었다.

살라흐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되었다. 살라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동일한 어근이 우가릿어(VT 19: no. 1757)와 아카드어에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형태에 관한 어떤 분명한 관계에 대하여 고려할 것이 없다. 아카드어 살라흐는 제의와 의학문서에서 "뿌린다 sprinkle"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어조 중 하나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사면이다. 이 단어는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구약의 용서가 효과가 없고 불가능이었다는 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 같이 보인다(히 9:9, 히 10:4).

해답은 분명한 것이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무지몽매한 순간에 저지른 두 가지 죄, 즉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평 때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친히 선언하신다(출 34:9, 민 14:19-20).

둘째로,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실재적 속죄와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도전적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었다(민 15:30-33). 속죄가 될 때 죄인의 죄가 용서 받는다는 주장은 되풀이 되었다(레 4:20, 레 4:26, 레 4:31, 레 4:35, 레 5:10, 레 5:13, 레 5:16, 레 5:18, 레 5:26, 레

19:22). 거짓말, 절도, 거짓 맹세, 사기(레 6:1-7)와 같은 모든 죄나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레 4:2)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죄들은 제외되기 보다는 "그릇 범죄"(sins of ignorance)와 더불어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provision)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민 15:25, 민 15:26, 민 15:28). 마치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가 속죄 받았음을 되풀이하여 기록되었다(레 16:21, 레 16:30, 레 16:32, 레 16:34). 그러나 개개 이스라엘인들은 진실한 고백에서 당연히 '겸손해야'(과롭게 하고) 하였다(레 16:29, 레 16:31). 이러한 용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인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되도록 기도한 그러한 종류의 용서이다(왕상 8:30, 왕상 8:34, 왕상 8:39, 왕상 8:50와 대하 6장에 있는 그 병행 구절). 아모스는 다니엘과 같이(암 9:19), 유다를 위하여 용서를 간구하였다(암 7:2). 그러나 때때로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신 29:19, 애 3:42).

이러한 공개적인 용서의 제안이 너무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사 55:7)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크게 보도하였다. 그들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사야의 청중들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서 나온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구약성경에서의 용서의 경험은, 비록 객관적으로 그 용서의 기초와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을지라도 인격적인 효험이 있었다. 용서에 대하여 사용된 다른 용어들은 죄에 대한 기억을 없애거나 도말하는 죄에 대한 기록을 덮거나 감추는, 죄를 제거하거나 일소하는, 죄를 관대히 봐주는, 대속물을 근거로 하여 용서하는 관념을 강조한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세 가지 본문, 렘 31:34, 렘 33:8, 렘 50:20은 새 언약과 우리 주님의 최후 재림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미래의 용서를 공포한다. (참조: W. C. KAISER; BDB).

𐤀𐤓(5771, 아온) -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벌

아온(명남)은 아와(𐤀𐤓, 5753)에서 유래했으며, '불법, 부정, 죄악, 사악, 유죄, 죄의 벌(징계)'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230회 나온다.

명사 아온은 집합명사이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모리인의 범죄, 타락에 대해 말씀하신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단수)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창 15:16).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은 "내 죄(단수)를 생각나게"하려고 왔다고 불평한다(왕상 17:18). 따라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관용구에서 나타난다. '아온을 지다'(창 4:13, 출 34:7, 호 14:3, 시 85:3), '아온을 제거하다(하필형)'(속 3:4), '아온을 갚다'(출 20:5) 등. 이러한 '전체'라는 개념은 집단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와 연관하여서도 나타난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복수)를 지고"(레 16:22);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단수)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덕목이 위의 언급들이 가리켜주는 바와 같이 이 단어는 행위 및 행위의 결과, 범죄 및 범죄의 형벌 모두를 나타낸다. 양 개념이 모두 나타나지만 때로는 행위('죄')에 초점이 주어지고, 또 때로는 범죄의 결과('형벌')에, 때로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상황('죄의식' guilt)에 초점이 주어진다. 형벌을 요하는 범죄에 초점이 주어지는 실례: "이 '죄악' sin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사 30:13, 참조: 겔 18:30, 겔 44:12, 호 5:5, 욥 31:11, 욥 31:28). 형벌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예: "일어나라...그렇지 않으면 네가 성읍의 '형벌' 가운데서 소멸되리라"(참조: 렘 51:7, 시 39:12, 시 106:43, 욥 13:26, 욥 19:29, 스 9:7). '죄의식'(guilt)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예: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삼상 25:24). 다른 많은 실례들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행위로서의 죄'라는 의미와 '형벌'이라는 의미 사이의 현저한 양면적 의미는 구약성경의 사상에서 죄와 그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과 같이 근본적으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행동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러한 연관성은 "삶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라고 불리워졌다(Von Rad, G).

어근 하타(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종합적' 개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민 32:23을 보라: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나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어근의 명사형은 행위에 대한 '형벌'을 나타낸다(참조: 민 12:11). 따라서 죄는 개인과 혹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근절되어야만 한다(B. K. W.).

아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의 특성도 아니고(출 20:5, 출 20:6, 출 34:7), 인간의 속성과 행동(그러한 행동에 수반하는 결과를 포함하여)의 저항할 수 없는 특성이다.

아온은 삼상 20:1, 삼상 20:8, 삼하 3:8, 느 4:5, 시 51:2에서 여러 종류의 시민 생활 혹은 사회적(규칙) 위반을 지칭하고, 수 22:17, 삼상 3:13-14에서는 제의적인 (규율) 위반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집합 명사 혹은 유사

추상명사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과거의 범죄의 총합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실례는 너무 많아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민 14:34, 삼상 25:24, 삼하 22:24, 왕상 17:18, 스 9:6, 욥 13-26장, 사 1:4, 렘 11:10가 그 예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아온의 성질과 내적 근원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욥 15:4-5에서 아온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시 78:37-38에서 아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확고 부동하지 않음과 결합되어 있으며 렘 14:10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방황하기를 좋아하였다 라는 진술과 관련되어 있다.

아온은 간음(민 5:31) 및 우상 숭배(호 5:5, 렘 16:10-11)와 관련된다. 이러한 은유에서는 위반하는 행동과 그 결과인 더럽힘 모두가 묘사된다.

아온의 다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소외(alienation, 레 26:40, 사 59:2, 사 1:4), 그리고 부정(시 51:2, H4)으로 나타난다.

죄책감(guilt)은 내적 인간에 대한 아온의 주요한 결과다. 이 요소는 과거 범죄에 대한 총합을 나타내는 아온의 기능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BDB는 죄책감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실례를 30여회 이상 열거한다(p. 731).

아온은 그 결과가 내적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에도 가문, 지파, 이스라엘 민족, 열방 및 자연에도 영향을 끼친다. 가문에 대하여, 친숙한 진술은 출 20:5, 신 5:9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가문이나 지파의 개개인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내리는 벌로 집중할 수 있다(레 5:17, 레 18:25, 민 5:31, 삼상 25:24, 삼하 14:9, 시 106:43, 렘 36:31). 아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한다(레 26:39, 스 9:7, 스 9:13, 시 107:17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있는 많은 실례).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 임무의 거룩과 성소의 거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형벌의 위험을 떠 맡았다(출 28:38, 출 28:43, 레 22:16, 민 18:1, 민 18:23).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그 재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온의 결과로 인식되었다(애 4:6, 애 4:13, 애 4:22, 겔 39:23, 단 9:13, 단 9:16).

아온에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인간의 탄원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아온을 벗어날 길을 보여준다.

인간은 아온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창 44:16, 레 16:21, 느 9:2, 시 32:5, 시 38:18, H19). 그리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해야 한다(출 34:9, 민 14:19, 욥 7:21, 시 25:11). 인간은 또한 그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겔 18:30, 겔 36:31). 형벌을 대신 받을 대체물이 제공된다(레 16:22, 사 53:5-6, 사 53:11, 겔 4:4-6).

가장 중요한 것은 아온을 제거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것은 약속되고 실제로 선포된다(민 14:18, 시 65:3, H4, 시 78:38, 시 103:3, 잠 16:6, 사 6:7, 렘 32:18, 단 9:24, 미 7:18-19, 속 3:4, 속 3:9, 참조: 다윗의 입맞춤에 의한 용서의 행동, 삼하 14:32). 세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깨끗케 하시는 행동이 강조되어 있다(시 51:4, 렘 33:8, 겔 36:33). (참조: C. SCHULTZ; BDB).